

이슈 '인터넷 종량제' 찬반 정면충돌

“재도약의 힘이다”

통신사업자 vs 네티즌 논쟁 가열

“기반위협을 독이다”

‘PC방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폐업하는 곳이 늘어난다. 전국에 17개나 되던 사이버대학들도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언론사들은 인터넷 미디어 부서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관공서 앞에서는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줄이 늘어서 있다.’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의 가상 시나리오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종량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량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살펴봤다.

글 신승철 기자

“인망 확충 안하면 초저속.” “그래도 수익 나아졌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불매운동을 펼치겠다.” “인터넷 종량제 결정 안됐다.”

이용경 KT 사장과 박병철 비시파크 사장이 각각 자신의 블로그(blog.paran.com/lyk)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쟁을 벌여 화제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을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고, 비시파크(www.bcpark.net)는 종량제 전환에 반대하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커뮤니티 사이트다.

종량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종량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했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KT는 “무조건 종량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종량제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욱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그 · 질의서 통해 종량제 논쟁

이용경 KT 사장은 개인 블로그(blog.paran.com/lyk)에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란 글을 올려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장은 “이제는 종량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면적이지 않으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통신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철 비시파크 사장은 ‘KT 이용경 사장님 수입이 늘지 않아요’란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앞세운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사장은 초고속인터넷업체 두루넷 출신이다.

박 사장은 먼저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두 배씩 늘고 있으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장의 주장에 대해, “KT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영업보고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2003년 11조5,74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8,508억원으로 2,762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에 KT 영업이익은 1조2,431억원에서 2조1,271억원으로 71.1%, 순이익은 8,300억원에서 1조2,555억원으로 51.3% 늘었다.

박 사장은 “KT는 이런 경영성과에 대해 초고속인터넷과 개인휴대전화 재판매 등의 매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며 “따라서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이용경 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에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용이 1조2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1,556억원 줄었다”며 “트래픽이 증가해도 비용은 줄어,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정액제로 돼 있다. 속도에 따라 월 2만5,000~6만원 가량을 내면 무제한 이용하게 한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정액제를 이용해 가입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

하지만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율이 70% 가까이 되는 등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KT 등이 종량제를 들고 나왔다. 서비스사업자들은 “정액제가 사용량에 상관없이 요금을 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의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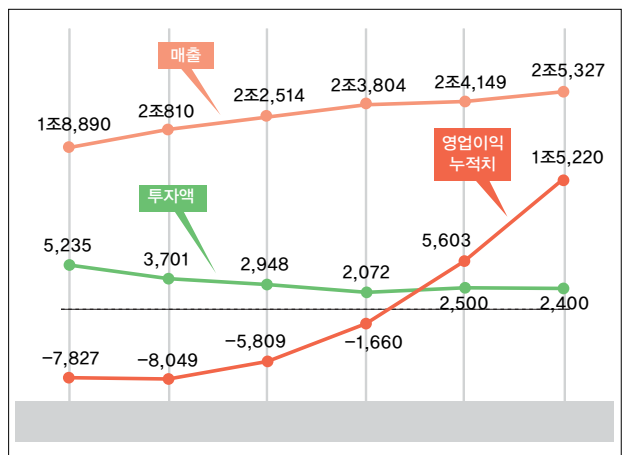
반대 여론 확산 · 업계 산업위축 우려

하지만 네티즌과 게임업체 등 종량제에 반대하는 쪽은 “서비스사업자들의 종량제 주장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전기나 수도처럼 소모되는 물자가 아니라 TV나 신문과 같은 매체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TV 수신료와 신문 구독료가 시청 시간이나 읽는 기사의 개수에 따라 차등 지불되지 않듯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KT의 전봇대 고발’이란 글을 올리면서 통신주사용료 문제를 통해 KT를 비꼬았다. 현재 KT는 통신주를 설치·운용하면서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점용료 6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네티즌은 “KT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망은 자신들의 투자가 아니라 과거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것이다. 민영화된 마당에 설비 증설을 위한 추가 비용만큼은 수익의 일부분을 재투자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처신이다. 신제품 개발할 테니 그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림〉 KT의 매출 · 영업이익 · 투자액 추이와 전망 자료: KT

이용경 KT사장의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 블로그 전문



얼마 전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제가 언급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대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는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정책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입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입니다. 또 이메일의 80%를 차지하는 스팸에 요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도시 사용자는 평균 주당 20여 시간을 접속하지만 농촌 사용자는 4시간 미만만 접속합니다. 다시 말해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현재의 정책제를 유지하려면 요금수준을 올려야 현재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책제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통화 도수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되었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화시간에 따른 통화료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체제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말씀하시는데로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전세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밖에 안되지만 한글로 된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IT 강국으로 계속 발전하여 나가려면 사용량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범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보격차도 문제입니다. ‘Early adaptor’와 ‘follower’ 사이의 정보격차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정치참여, 사회참여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될 현 참여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더욱이 네티즌들은 “KT가 종량제를 도입하면, KT 및 자회사 통신 상품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 비씨파크가 ‘종량제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종량제를 반대하는 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종량제를 풍자하는 패러디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또 KT의 자회사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란닷컴의 탈퇴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주소로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놓는 ‘탈퇴페이지 퍼뜨리기’를 전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종량제가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은 이제 생활의 일부”라며 “종량제로 네티즌들의 발목이 묶이면, 인터넷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e러닝 업체 관계자는 “e러닝은 대부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고, 한 강의 당 평균적인 시간은 40~50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종량제의 요금부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간, 데이터(패킷), 전송량을 고려하면 e러닝이 가진 장점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옥죄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강력 대응에 KT 사면초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종량제 주장을 주도한 KT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특히 종량제가 핵심 컨버전스 사업과 상충될

KT가 ‘인터넷 종량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를 풍자하는 패러디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수도 있다는 데 KT의 또다른 고민이 있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고 요금은 올라가겠지만, 고객들의 소비 심리 감소로 홈

박병철 비시파크 사장이 이용경 KT 사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늘어났을 뿐입니다.

귀하의 말과 자료를 살펴보면 트래픽 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도 소요되는 비용은 줄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트래픽 량이 두 배씩 늘어나도 KT의 수입은 50%가 증가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혹시 경영성과에 비해 사장님의 수입이 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귀하께서 주장하고 시행하려는 인터넷 종량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블로그에서 이야기 하신 잘못된 부분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3월 31일에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중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에 따르면 KT의 영업수익은 2003년 11조5,745억원에서 2004년 11조8,508억원으로 2,76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003년 10조3,314억에서 9조7,237억으로 전년대비 6,077억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2003년 1조2,431억에서 2조1,271억으로 전년대비 71%가 늘어났으며,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003년 8,300억에서 2004년 1조 2,555억으로 51%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귀하께서는 초고속 인터넷, PCS 재판매 등의 매출 호조로, 전화 및 데이터, LM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이유는 전년도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영업이익 71%, 당기순이익 51.3%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 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접속비용 1조252억에서 8,696억으로 1,556억이 줄어들었고 국제접속망을 사용함에 따른 국제정산부담금이 1,854억에서 1,899억으로 45억

네트워크·미디어·디지털콘텐츠 등 KT의 '미래전략 2010'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의 반대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종량제는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용경 KT 사장은 "꼭 종량제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 인터넷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라면서 다소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용경 KT 사장은 한 네티즌을 직접 초청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까지 해 최근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음을 짐작케 했다.

이 사장은 최근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 네티즌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종량제에 대해 설전을 펼쳤는데,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도선(30)씨로 최근 이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올리자 이를 직접적으로 반발했던 인물이다.

이 사장은 최씨를 만나자마자 "종량제 안되겠습니까", "종량제 문제에 대해 네티즌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며 곤장 종량제 문제로 화제를 몰아갔고, 최씨는 이에 대해 "음란 스팸메일을 줄이려면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란, 스팸은 인터넷 문화의 문제이지 인터넷 종량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신이 블로그에 올렸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블로그에 쓴 내용은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음란물, 스팸 등 인터넷 문화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피

력한 것"이라며 "종량제 부분만 부각되면서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더 내야 할 것처럼 네티즌이 우려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다소 물러서기도 했다.

이 사장은 "포커스는 종량제에 있지 않다. 블로그에 쓴 글의 제목도 '우리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였다"며 "트래픽이 지난 1년새 두 배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국민이 피해보게 되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종량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 가령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만들어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5%의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2위 사업자 하나로텔레콤은 KT주장에 동의하지만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데이콤은 1, 2위 사업자가 종량제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하나로텔레콤측은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자칫 비싼 대가를 치른 두루넷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현재 종량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데이콤도 종량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데이콤 컨버전스사업팀 김선태 상무는 "종량제 틀은 시장규모가 큰 KT나 하나로텔레콤이 마련할 것"이라며 "데이콤은 양사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